

① 개요

세민황데본풀리는 사람은 적선을 하며 살아야 저승에서 보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화이다.

세민황제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의 빛을 갚으라는 원귀에게 시달리다가 이승으로 돌아가 빛을 갚는 한편 팔만대장경을 구하고 적선을 펼치는 삶을 살았다.

② 내용

세민황제는 포악할 뿐 아니라 불법(佛法)을 무시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죽어 저승에 가니 원귀들이 이승에서 진 빛을 달라고 둘러쌌다. 세민황제는 저승왕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승에서 적선을 한 매일장상 창고의 돈을 꾸어 먼저 갚고 적선을 하기 위하여 이승으로 돌아갔다.

세민황제는 매일장상의 돈을 꾸어 원귀들에게 갚은 뒤에 환생하여 매일장상에게 적선에 대한 지도를 받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팔만대장경을 내오기로 하였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명하여 대장경을 가져오게 하였다. 호인대사는 절벽 틈에서 ‘빠른개비’를 만나 절벽과 바다를 건너 팔만대장경을 얻어왔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매일장상을 불러 의논하며 저승 빛을 갚는 한편, 팔만대장경을 읽어 불법과 적선의 도를 마련하였다.

③ 특징

서귀포 심방 박봉춘의 전승자료이다. 이 본풀이는 특수본풀이에 해당한다. 세민황제는 당태종인데 이처럼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 무가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까닭은 알기 어렵다. 이승에서 못다한 일이 있어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가서 일을 마저한다는 설정은 허옹애기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본풀이에서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적선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승의

삶이 저승에서도 이어진다는 관념이 엿보인다.

④ 핵심어

세민황제, 불법(佛法), 저승, 원귀, 이승, 적선, 매일장상, 환생, 팔만대장경, 호인대사, 빠른개비

⑤ 원전 서지사항

세민황례본풀리(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판옥호서점, 1938)

⑥ 관련 자료

세민황제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